

**이흥재의 세상만사**



상식 하나, 작은 꽃들엔 왜 우리 지어 피는 것일까. 한 마디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다. 장미처럼 화려한 꽃과는 달리 꽃송이가 작고 소박한 꽃들은 무리를 지어서라도 크고 화려하게 보여야만 벌·나비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 둘, 편백 같은 나무들은 왜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것일까. 벌레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피톤치드는 미생물이나 벌레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덩치가 큰 사람에게 농도가 약해 오히려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 울 여름 유난히 덥다. 모기의 입도 때를 물어뜯는다. 처서(處暑)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덥다. 기록적인 불볕더위라고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8월 평균기온만 봐도 광주의 경우 4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폭염, 대지가 필뽕 끓고 있다. 녹음 우거진 시원한 숲이 그리다.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 하면 대구를 떠올렸다. 오히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말까지 있었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졌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이제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를 말한다. 실제로 울 여름 열대야 관측 일수를 보면 광주가 대구보다 훨씬 많았다. 두 도시의 낮 최고기온도 지난해부터는 광주가 대구보다 높아졌다. 어쩌다 광주가 분지(盆地)인 대구보다 더 필뽕 끓게 됐을까. 계명대 김수봉 교수가 그 공금증을 풀어준다. 녹화사업으로 대구의 온도가 종전보다 평균 1.2도 내려갔다는 것이다.(논문 '기온 분석과 공원녹지의 효과') 기상청과 산림청도 이에 동의한다. 도시 내 녹지 비율과 숲 면적이 대구보다 크게 낮거나 적은 광주가 여름철 도심 '열섬'(heat island) 효과 탓에 점차 뜨거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폭염 도시' 탈출 대구를 보라**

반대로 '더위의 대명사'였던 대구가 폭염 상권 도시에서 사라진 것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심어진 2800만 그루의 나무가 '자연 에어컨'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쓰레기매립장을 나무 8만 그루의 수목원으로 변신시킨 것 역시 도심 온도를 낮추는데 한 몫했다. 대구의 녹지 비율(61%)은 서울의 두 배나 된다.(광주는 42%) 도시 온도가 농촌보다 높은 이유는 높은 건물과 아스팔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열섬 현상' 때문이다. 뜨거운 공기를 도심 상공 300m 높이까지 형성된다. 하지만 나무가 울창한 곳은 시가지보다

**30년을 내다보고 씨앗을 뿌린다**

상대온도가 낮아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이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흘러들면서 '열섬 현상'을 막는다. 산림학계에 따르면 도시 면적 중 나무가 덮고 있는 비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0.6도씩 온도가 내려간다고 한다. "1년 행복하려면 곡식을 심고, 30년 행복하려면 나무를 심을 것이며, 100년 행복하려면 덕을 베푸라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숲속의 전방 만들기'는 30년을 보고 씨앗을 심는 일이다." 언젠가 이낙연 전남 지사가 한 말이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함께 '숲속의 전방 만들기'는 전남도의 2대 브랜드 정책인데 둘 다 지사 임기 안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따라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생색도 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은 일단 높이 쳐줄 만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던 차, 고건 전 총리와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최근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오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당시 이 지사와 고 전 총리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재미있다. "다시 도지사를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섬을 가꾸고 싶소." "왜 재임 중에 는 못 하셨습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 않소?" "어찌 됐든 이 지사가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인 듯싶

다. 이 지사는 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낸 일본 통이다. 나 또한 자랑은 아니지만 일본을 10여 차례 다녀온 바 있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느낀 것이 하나 있다. 어쩌면 그렇게 나무와 숲이 많을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얼마 전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대마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마치 아마존의 정글을 연상케 한다. 섬이 온통 산으로 돼 있는 가운데 특히 다테산(558.45m)은 세계적으로 진귀한 상록 활엽수 원시림을 자랑한다. 이곳의 나무만 모두 팔아도 일본 전체 국민이 2년은 먹고 산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다.

**'숲속의 전방'을 후손들에게**

일본엔 왜 숲이 많을까. 지반이 약해 폭죽건물이 많은 이 나라에선 첫째 집을 짓기 위해, 두 번째 섬나라인 까닭에 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인공조림에 나서 편백이나 삼나무 같은 고급 수종을 많이 심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조림에 필요한 예산의 70%는 정부에서 부담했지만 나머지 30%는 대기업들의 기부로 충당했다는 점이다. 토요타·아마하·도시바 등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도 일본의 조림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김연아 선수가 한창 활약할 때 빙상장에는 늘 한글로 '마루한'이라고 쓰인 광고를 볼 수 있었다. 이 마루한이라는 기업 역시 '나무 심기'에 기여의 기부를 한 회사다. 마루한의 한창우(85) 회장은 경상도 출신 재일교포로, 일본대지진 때 성금도 100여 원을 쾌척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을 모티브로 '숲 가꾸기 사업'에 끌어들이 수는 없을까.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자치단체나 기업에서 도시 숲 가꾸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숲 가꾸기'를 브랜드 정책으로 내건 곳은 전남도 밖에 없다. 나는 기왕이면 광주지사가 전남도 지사가 마루한의 한 회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물론 일본의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사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광주지사가 전남지사·부산시장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것도 좋겠다. 작은 풀꽃들이 우리 지사서 벌·나비를 유혹하듯이, 숲속에 30년 있으면 산삼 한 뿌리를 먹는 것과 같다 한다. 숲에는 피톤치드의 향기가 있어 그곳을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두통이나 불면증도 없어진다. 숲에 있는 많은 음이온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혈액이 깨끗하게 순환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바로 울창한 숲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는가. <주필>

**“광주는 21대문화 중심지...확산 힘 보낼 것”**

**리퍼트 주한 미 대사 광주 방문  
윤 시장 접견·프로야구 관람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리퍼트 대사는 25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운창현 광주시장을 만나 비공개교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윤 시장은 “지난 6월 리퍼트 대사가 5·18 기념재단을 찾아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한때 불행했던 관계를 털고 미국과 광주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시장은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 현역이 열리는 중에 한미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적 연대의 가치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아시아 문화전당을 통해 미국의 문화프로그램을 함께하면 한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리퍼트 대사는 “광주는 아시아 다문화주의의 중심지”라며 “미국은 광주, 광주시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와 인권, 인도적 지원 등 광주와 미국이 공감하는 분야를 바탕으로 이런 모멘텀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이날 ‘야구광’인 리퍼트 대사에게 “아



윤창현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광주시청을 방문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왼쪽)에게 아들 선물로 어린 이용 야구 장난감을 건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들에게 주라”며 야구 장난감을 선물하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어 호남대를 방문해 도서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생 30여명과 ‘세계 속의 한국과 한국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주제로 토론했다. 그는 또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리퍼트 대사는 26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지역 중·고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참석 당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소문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월에는 5·18 기념재단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한 5·18 기록물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반미(反美)의 본산으로 여겨졌던 전남대를 방문하는 등 미 대사로서는 취임 이후 광주를 세번째 방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ac.kr

**제2의 지구? 태양 근처 ‘프록시마 b’ 발견...생명체 있을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를 닮은 행성이 발견됐다. 표면에 물이 있을 수도 있는 조건이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주목된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의 길렘 앙글라다-에스쿠데 교수를 비롯한 세계 천문학자들은 24일(현지시간)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행성 중 태양과 최단거리에 있는 외계행성 ‘프록시마 b’를 관측했다고 과학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다. 16년간의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 주위를 도는 프록시마 b는 태양으로부터 4.24광년(약 40조 1천104km) 떨어져 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26만6천 배로,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 닮은 외계행성 가운데 가장 가깝다. 바위 행성인 프록시마 b의 크기는 지구의 1.3배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을 11.2일에 한 바퀴 켜 돈다. 그러나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태양보다 훨씬 온도가 낮고 빛도 1000 배가량 약하기 때문에 항성에 바짝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록시마 b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정도의 온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국산 태양광 드론 성층권 진입 성공...세계 세번째**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광 무인기(드론)가 세계 세 번째로 성층권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2일 태양에너지만으로 비행하는 ‘고(高) 고도 태양광 무인기’(EAV-3)가 18.5km의 성층권 고도에서 90분간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4.12km에 도달한 데 이어 4km 더 높은 비행 고도를 기록했다. 관제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고도 18km 이상의 성층권 비행에 성공한 것은 영국 키네틱(Qinetiq)사의 제퍼(Zephyr)와 미국의 에어로바이론먼트(Aerovironment)사의 헬리오스(Helios)에 이어서 세 번째다. 성층권은 대기 밀도와 온도가 너무 낮아 일반 항공기는 비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제 영역이 아니어서 정해진 항로 없이 자유자재로 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을 활용하면 비행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장기 체공이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무인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高) 고도 태양광 무인기는 실시간 지상 관측이나 통신 중계·기상 관측 등 인공위성을 보완하는 임무를 저렴하게 친환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162cm의 아른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실종 당시 삼정계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청,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끈색 앞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체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비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병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룡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바 좀 찾아주세요!!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公國家 認家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3기)	광주교육대학교(14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 2016. 9. 2(금) 09:00 · 토요일 오전: 2016. 9. 3(토) 09:00	· 월요일 오전: 2016. 9. 5(월) 09:00 · 월요일 오후: 2016. 9. 5(월) 14:00 · 목요일 오전: 2016. 9. 1(목) 09:00 · 토요일 오후: 2016. 9. 3(토) 14:00
모집기간	2016. 8. 1(월) ~ 9. 3(토)	2016. 8. 1(월) ~ 9. 3(토)
수업기간	2016. 9. 2(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9. 5(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 09:10~13:00 · 오후 14:10~18:00	· 오전 09:10~13:00 · 오후 14:10~18:00
수강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년제 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영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학원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1급) 취득 기회 부여	· 1.2년제 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영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학원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1급) 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신청공): 010-3614-4180	· 문 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신청공): 010-3614-4180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남구 월산동 원룸3층건물133평 대지74평 방18개 코너위치 건물2009년도 환계약후 ▶ 감평가 4억6천 최저가 3억2천만원
- 담양군 담양읍 5층속빌딩 450평 객실28개 토지140평 투자차수수 ▶ 감평가 10억원 최저가 4억5천(감평가 45%)
- 광산구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추산상권인근 위치 및 건물최상 ▶ 최저가 3억2천5백만원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평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 토지, 병원, 사옥, 창고부지 매매상당**

-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순창방향 계획관리지역 건물974평 토지 25,392평 ▶ 감평가 74억 최저가 34억원
- 담양군 월산동 2층전원주택 건물82평 토지211평 주변환경 광주에서 30분거리 ▶ 감평가 5억3천 최저가 2억4천(45%가액)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차장인근 근리시설2층 건물253평 토지290평 계획관리지역 ▶ 감평가 8억 최저가 4억4천만원
- 영암군 시종면 근린시설 3층건물305평 대지209평 주차장있음 면사무소인근 계획관리지역 ▶ 감평가 8억9천 최저가 3억2천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자본 없이도 재테크 가능!!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평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2016. 9. 8 ~ 2016. 12. 8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2 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